

韓國 初期國家 形成過程의 小國併合王國

李 鍾 旭

- I. 머리말
- II. 소국병합왕국의 존재
- III. 소국병합왕국의 형성
- IV. 소국병합왕국의 구조
- V. 소국병합왕국의 지배세력
- VI.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조직
- VII. 소국병합왕국의 대외관계
- VIII. 소국병합왕국의 정치적 변동
- IX.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한국 초기국가 형성과정에 소국연맹에 뒤이어 나타나는 정치 발전단계인 소국병합왕국단계에 대한 해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국연맹단계와 소국병합왕국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부족연맹 또는 연맹왕국이라는 단계를 설정하여 왔다. 필자는 그 동안 소국연맹단계에 이어 소국병합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¹⁾ 그런데 소국

병합단계는 정치적 현상을 나타낼 뿐 일정한 정치체를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이에 소국병합국이라고도 불러 보았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국사상 소국병합단계에 이른 나라들은 당당한 왕국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소국병합왕국이라고 일단 부르기로 한다.

소국연맹단계에 이어 나타나는 정치발전단계를 部體制段階로 보는 견해도 있다.²⁾ 소국병합이 진행되어 피병합소국을 단위로 하는 지방통치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될 때 몇 개의 피병합소국들을 묶어 그 것을 단위로 하여 部·方·州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구태여 부체제단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와 같은 부체제라는 용어로는 소국병합왕국 단계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없다. 그 것은 부가 지방통치조직일 뿐 소국연맹 다음에 이어지는 정치발전단계를 옳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신라의 왕경 6부가 설치된 것을 가지고 부체제 단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시대구분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이다.³⁾

여기서 다루는 시기는 소국병합왕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고조선은 기원전 5세기말에서 4세기말 또는 3세기 초 요동고조선시기는 물론이고 위만조선시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여는 소국병합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없으나 기원후 1세기 전반에 정치적인 지배자가 왕을 칭하기 훨씬 이전에 소국병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헤아려진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 소국병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국천왕(179-197)대에 정치적 개혁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고국천왕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통치조직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백제는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고이왕대에 정치적

1)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p. 258-261 및 『韓國 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研究』 67, 1989, pp. 17-23.

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 26, pp. 94-99.

3) 그러한 사정은 현재 한국을 道체제사회라 하거나 서울의 지방행정구역인 區를 근거로 하여 區체제단계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 개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을 다루기로 한다. 신라는 기원후 1세기 후반 이웃한 소국을 병합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국병합이 마무리되고 김씨족인 내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다루는 시기의 상한은 소국병합을 시작한 때이고 하한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나마 정치적인 개혁을 통하여 관료적인 국가로 넘어가기 전까지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는 소국병합단계에 해당하며 정복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된다.

II. 소국병합왕국의 존재

국가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팽창을 하여 나가고 권력을 중앙집권적인 통제하에 두려고 하고 국력을 영역 확장에 사용하려는 특성이 있다. 한국사상의 소국들은 소국형성 이후 이웃한 소국들과 소국연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소국연맹체의 소국들 중 연맹관계를 벗어나 이웃한 소국을 병합하는 소국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체가 되었던 소국 고구려, 십제, 사로국이 그 예가 된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2년조에는 비류국의 왕인 松讓이 沸流國을 들어 來降하니 그 땅을 多勿都로 삼고 松讓을 그 主로 삼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三國史記』百濟本紀 百濟始祖溫祚王 즉위조에 나오는 건국 설화에는 십제가 이웃한 지역의 미추홀 소국을 병합한 것을 말해준다. 『三國史記』列傳에는 탈해왕대에 居道가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병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三國史記』에는 3국의 소국병합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기록에는 없으나 고조선과 부여도 소국병합을 전개한 것이 틀림없다. 고조선은 기원전 5세기말 경에는 요동지역의 소국들을 병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조선이 요동지역을 상실하고 그 중심을 평양지역으

로 옮긴 후에도 천천강 이남에서 황해도 일부 지역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왕국으로 자리잡았다.

夫餘는 언제부터 소국병합을 전개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三國志』 夫餘조에 나오는 기록에는 諸加들은 과거 소국을 단위로 한 지역을 다스리던 세력들로 여겨진다. 『三國志』 挹婁조를 보면 漢 이래 부여는 挹婁를 신속하고 租賦를 중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漢 이래가 언제부터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前漢일 가능성도 있다. 읍루를 신속하기 전에 부여는 소국병합을 이미 전개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高句麗는 예맥이라는 소국연맹의 변방에서 한 소국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찌기 송양왕이 다스리던 비류국을 병합한 고구려는 그 후 소국병합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환인에서 소국을 형성하였던 고구려는 좁안의 국내성으로 천도하며 영역이 크게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 이후 고구려는 소국병합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琉璃王 33년에는 烏伊와 摩離로 하여금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양맥을 치게 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군대를 진격시켜 漢의 고구려현을 습취하였다. 大武神王 9년에는 왕이 蓋馬國을 친정하여 그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안위시켰으며 노략질을 못하게 하였고 단지 그 땅을 郡縣으로 삼았다. 같은 해에 句茶國왕은 개마국이 멸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래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땅을 개척함이 심히 넓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太祖大王대에 이르면 고구려의 정복사업은 한층 활발하여졌다. 4년에는 동옥저를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만들었다. 영역을 개척함이 동은 창해, 남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16년에는 갈사왕의 손자인 都頭가 나라를 들어 항복하여오니 그를 于台로 삼았다. 20년에는 貫那部 沛者 達賈를 보내어 藻那를 치고 그 왕을 포로로 하였다. 22년에는 桓那部 沛者 薛儒를 보내어 朱那를 치고 그 왕자 乙音을 포로로 삼아 古鄒加로 삼았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는 여러 소국과

那들을 병합하여 영토가 크게 넓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고구려는 단순히 소국이 아니라 옥저와 같은 정치체도 병합하였다.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사업을 펴서 피정복 소국을 성읍 또는 군현으로 편제하여 통치하였다. 고구려는 비류국을 병합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폭발적으로 정복사업을 펴 나라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백제는 기원전 2세기에 소국을 형성하였다고 헤아려지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비류가 세웠다고 하는 미추홀 소국을 통합하였다. 미추홀 소국을 통합한 십제는 국명을 백제로 바꾸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 백제는 마한의 북방 변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한연맹의 한 소국으로 머물렀다. 십제가 미추홀 소국을 통합하여 그 영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백제의 국력이 마한연맹의 다른 소국들 그중에서도 맹주국과 비교하면 미약한 것은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그러나 미추홀 소국을 병합한 백제는 소국단계를 넘어서 있었다. 이에 백제는 국력을 신장시켜 점차 마한과 긴장관계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갔다. 마한 소국을 병합한 결과 마한의 맹주국의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여겨진다. 백제는 마한의 소국들을 모두 병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에 백제에 병합되지 않았던 마한의 소국들은 계속 소국연맹단계에 있었다.

온조왕대 이후 백제의 마한 소국병합 사실은 『三國史記』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나오는 기록 중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쟁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대 多婁王 36년 조에는 娘子谷城까지 영토를 넓히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기록에 이어 37년에는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蛙山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狗壤城을 쳤는데 신라가 기병 2천을 동원하여 이를 역격하여 패주시켰다고 되어 있다. 39년에는 蛙山城을 攻取하고 2백인을 머물러 지키게 하였는데 곧 신라에게 패하였다. 43년에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쳤다. 47년에 장병을 보내어 신라를 침공하였다. 48년에

는 또 와산성을 쳐서 빼앗았다. 49년에는 와산성을 다시 신라가 차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백제와 신라가 과연 이른 시기에 전쟁을 벌였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것은 백제와 신라 사이의 교통로가 개척된 것이 이른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라 阿達羅王 3년(156)에는 雞立嶺路를 열었고, 5년(158)에 竹嶺을 열었다고 한다. 더우기 당시 계림령과 죽령의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신라는 경상북도의 소국들을 모두 병합하기까지는 1세기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백제 역시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三國史記』 百濟本紀나 新羅本紀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의 전쟁관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벌인 기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나오고 있는 백제와 신라의 전쟁기록을 백제가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한 사실을 백제와 신라의 전쟁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의 찬자는 온조왕 27년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그 이후 마한의 존재는 적어도 『三國史記』에서는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백제의 마한 소국병합 사실을 신라와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기록이 마한을 신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라가 경상북도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한 3세기 중반경부터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실제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사정은 『三國史記』 列傳 昔于老전에 원래 신라에 속하였던 沙梁伐國이 沾解王대(247-261)에 갑자기 배반하여 백제로 돌아가자 于老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중엽에는 백제와 신라가 어떤 형태로건 서로 접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는 남쪽에 위치한 마한의 소국들만을 병합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에서는 북쪽에 있던 소국들도 병합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사정은 북부인들로 나오는 세력들이 원래는 소국의 지배세력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제는 그러한 소국들 외에 낙랑군과 진변군 및 3세기초 대방군이 설치된 후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현들을 병합하였다. 백제는 동쪽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신라는 脫解王대(57-80)에 居道가 于尸山國과 居柴山國이라는 소국들을 병합한 이래 소국병합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婆娑王(80-112) 23년에 音汁伐國, 悉直國, 押督國의 왕이 래향을 하였다. 파사왕 29년에는 군사를 보내어 比尺國, 多伐國, 草八國을 병합하였다. 『三國史記』地理志에는 압독국을 병합한 것이 祇味王(祇摩王)(112-134)대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2세기 초에 신라는 여러 소국들을 병합한 것이 분명하다. 伐休王(184-196) 2년에는 召文國을 병합하였고, 助賁王(230-247) 2년에는 甘文國을 병합하였으며, 沾解王대(247-261)에는 沙伐國을 병합하였다. 신라의 소국병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신라의 소국병합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신라가 이서국 등을 3세기대에 다시 병합한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소국을 완전히 병합하지 못하였기에 반발이 있었고 그 것을 재토벌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신라 역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소국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소국병합왕국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III. 소국병합왕국의 형성

지금까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소국병합을 하여 그 영역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왕국으로 성장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았다. 이제 그와 같은 소국병합왕국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소국병합과정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소국병합과정을 거친 나라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그 중 신라는 경상북

도 일대에 있던 소국연맹의 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성장을 하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소국들을 병합하였다. 그에 비하여 고구려는 예맥이라는 소국연맹의 변방에서 소국을 형성하였고 백제는 마한의 북쪽 변경지역에서 소국을 형성하였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소국연맹의 한 소국으로 뒤늦게 편입되었던 것을 의미하며 맹주국이 된 일이 없이 소국병합을 전개한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 초기국가들의 소국병합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국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병합하여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 다스리게 된 소국병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소국형성 단계에 각 소국들은 이주민집단으로 구성된 건국세력들이 이미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와 같은 군사적인 실력은 소국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소국들 사이에 병합과 피병합관계가 전개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 것은 각 소국이 일정한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영역과 인구도 큰 차이가 없어 소국간의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소국간에 병합관계가 발생하여 한 소국이 다른 한 소국을 병합하는 일이 생기면 그 후 소국병합은 가속화 되었다. 비록 하나의 소국을 병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나라의 영역과 인구는 2배 정도로 커지고 소국간의 전쟁을 할 군사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소국병합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일정 지역의 모든 소국들을 단시간에 병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것은 소국병합을 하였더라도 피병합소국을 다스리는 일에 적지 않은 국력을 기울여야 하였고, 다른 소국들을 병합하기 위한 병력동원과 병참지원체제를 갖추는 데에는 더욱 많은 부담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로국이 진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는 데에는 적어도 2세기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소국병합에 성공한 소국들은 말, 무기, 식량, 노비 등의 전리품을 장

악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명예를 높여주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국을 병합한 국가에서는 피병합국의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축성사업을 벌이고 도로를 개척하였으며 나아가 또 다른 소국을 병합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복사업을 전개하며 정복국에서는 피병합국으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3국이 속하였던 소국연맹의 소국들만이 아니라 그 밖의 또 다른 소국연맹체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었다. 고구려가 옥저를 병합하였던 것을 그러한 예가 된다.

고조선, 부여와 3국지역에서 하나의 소국만이 소국병합을 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소국연맹단계에 하나의 소국연맹안에서도 복수의 중복된 소국연맹이 찾아지는 예로 보아 하나의 소국연맹 안에서도 복수의 소국들이 소국병합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끝내 소국병합을 마무리한 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5개 소국들이었다고 해야겠다.

소국병합의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었다. 앞에서 제시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소국병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소국병합은 군사적인 작전에 의한 병합과 소국의 來降에 의한 병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전쟁은 정치적 발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전쟁을 통하여 소국을 병합하여 한단계 발전한 정치적 단계로 들어서는 것은 분명히 전쟁이 정치적 발전의 중요한 방법임을 말해준다. 來降의 경우도 소국병합을 하여 나간 소국의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에 굴복하여 항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조선과 부여는 잘 알 수 없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떠한 이유로 이웃한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하였을까. 고구려는 예맥이라는 소국연맹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변방에서 부여계 이주민인 주몽집단에 의하여 현토군이 설치되기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언제인가에 소국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107년 현토군이 설치되며 소국 고구려는 현토군의 군치로 되었다. 실제로 현토군의 군치는 고구려현이었던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그 후 한가지 분명한 사실로 현토군의 군치였던 고구려현이 기원전 75년에 다른 곳으로 옮겨진 바 있다. 현토군의 군치가 옮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소국 고구려의 세력을 비롯한 여러 소국세력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 중 고구려가 가장 중요한 반발세력이었다고 여겨진다. 일단 현토군을 몰아낸 고구려는 현토군 밖의 과거 예맥이라는 소국연맹의 여러 소국 중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간 것으로 헤아려진다. 주몽이 비류국을 병합한 것이 현토군의 설치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는 비류국을 병합한 후 국력이 다른 소국들에 비하여 커진 것은 분명하다.

대체로 위만조선시대에 고구려에서 이주한 온조집단은 십제라는 소국을 형성하였다. 십제가 비류집단이 세웠던 미추홀 소국을 통합하여 백제로 되었다. 처음에는 미추홀 소국을 병합한 십제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커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추홀 소국을 병합한 백제는 마한의 소국들보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실력이 한층 커진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보아온 고구려나 백제는 원래 있던 정치체인 濊貊과 韓이라는 소국연맹의 여러 소국들과는 그 건국세력들이 달랐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집단은 부여에서 내려왔으며, 백제를 건국한 온조집단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집단이었다. 그들 이주민집단은 하나의 전사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주몽이 말을 잘 길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것은 주몽집단이 당시로서는 월등한 군사적 실력을 갖춘 것을 말해준다. 주몽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온조집단 역시 그러한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었던 것을 생각된다. 그들은 대체로 기마에 능하였고 활을 잘 쏘는 전사집단의 성격을 잘 보

여준다. 그와 같은 전사집단에 의하여 형성된 고구려와 백제는 건국 초부터 전쟁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와 백제의 이 같은 국가적 성격은 결국 소국병합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신라의 모체가 되었던 사로국의 소국병합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기원전 1세기 경상도 북부의 소국들이 기원전 1세기 낙랑과의 원거리교역을 하는 과정에 사로국이 그 창구가 되었다. 중간무역의 이익을 차지한 사로국은 원거리교역망을 구성하였던 여러 소국들의 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사로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원거리교역체는 하나의 소국연맹을 형성하게 되었다. 소국연맹의 맹주국이 고 낙랑과의 원거리교역의 창구가 되었던 사로국에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된다. 사로국의 인구부양능력이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으나 실제 인구증가가 커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에 사로국은 정복전쟁을 벌여 이웃한 소국을 병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소국병합의 요인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들 수 있다. 고구려는 현토군이 설치되며 그 군치로 되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현토군의 치소로 된 후에도 고구려의 지배세력들은 그대로 그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낙랑군이 설치된 후에도 고조선계통의 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낙랑이 설치된 후에도 고조선계통의 지배세력들이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⁴⁾ 그러한 사정은 현토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의 지배세력들도 현토군이 설치된 후에도 계속 세력을 유지하며 끝내 현토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반발하여 고구려의 세력들이 보다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을 짐작케 한다. 이에 고구려는 현토군을 축출한 후에 소국병합을 하게 되었다.

백제는 韓이라는 소국연맹체의 북쪽 변경지역에서 소국을 형성하였다. 『三國史記』溫祚王 24년조에 온조왕이 한강을 처음 건넌을 때 발불

4)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1993, pp. 257-294.

일 곳이 없었는데 (馬)韓王이 그 동북 1백리의 땅을 떼어 주어 국가를 세우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韓에서 실제로 1백리의 땅을 떼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북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이주민집단을 막기 위하여 고구려계 이주민집단으로서 어느 정도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던 온조집단을 하남위례성에 머물게 하여 더 이상의 이주민집단이 韓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을 秦의 옛 공지 상하장에 1백리의 땅을 주어 머물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때 韓王이 온조집단을 한강남쪽에 머물게 한 것은 오히려 온조집단을 비롯한 부여계 고구려로부터의 이주민 집단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온조집단이 건국하였던 백제는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에는 낙랑의 세력이 韓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 낙랑의 압력에 의하여 백제는 국력을 신장시켰고 이윽한 馬韓의 소국들을 병합한 것으로 해아려진다.⁵⁾

고구려와 백제의 소국병합은 외부세력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와는 달리 사로국의 소국병합은 다른 요인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인구부양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소국들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된 것을 들 수 있다. 사로국은 진한이라는 소국연맹체의 맹주국으로 있으며 원거리교역의 중간이익을 차지하였다. 그 과정에 발달된 무기나 농기구를 먼저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어 군사적·경제적 실력을 신장시킨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국들 사이에 세력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사로국은 같은 연맹의 소국들 뿐아니라 가야연맹의 소국들과도 전투를 벌여 무기, 노비, 식량 등의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그와 같은 전리품은 국가 통치력과 군사력의 강화에 사용되었다. 이는 전쟁에서 사로국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었

5) 기원전 2세기 한강 남쪽에 있었던 韓이라는 소국연맹체는 낙랑군이 설치된 후 기원전 1세기 언제인가 마한, 진한, 변한의 소위 3한으로 구분되었다. 앞에서 말한 한과 마한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국병합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나 보기로 한다. 우선 소국병합이 전개되며 단위 정치체의 숫적 감소와 단위 정치체의 영역과 인구의 증가를 초래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국병합으로 인하여 독립소국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소국을 병합한 국가의 영역과 인구는 소국을 병합할수록 늘어난 것도 분명하다. 소국병합을 통하여 일정 지역의 여러 소국들은 끝내 하나의 왕국으로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조직도 한 차원 발전하였다.

거의 비슷한 규모와 인구를 가지고 있던 일정 지역의 소국들이 연맹을 맺었고 한걸음 나아가 소국병합단계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 피병합소국의 세력들은 정복을 당한 후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하였거나 정복국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되었다. 정복국에서는 피정복국의 왕들을 제거하여 독립을 빼앗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수취하였다.

피정복국에 대한 통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였다. 하나는 피정복국의 지배세력들을 그대로 두어 권력을 인정하여 주면서 통제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대체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다른 하나의 방법은 피정복소국의 왕과 그 일족을 제거하고 소국의 지방행정구역인 촌락 정도의 지배세력을 인정하여 주어 그들을 통한 지배를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신라가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는 뒤에 정리하기로 한다.

소국들 사이에 병합과 피병합관계가 전개되며 일정 지역의 여러 소국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이 소국을 통합한 왕국이 형성되면 왕국안에는 사상과 문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조직과 경제조직 그리고 군사조직 등이 편성되었다. 이는 소국연맹단계의 여러 소국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통치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국병합으로 이루어진 왕국단계에서는 피병합소

국의 왕실에서 설치·운용한 시조묘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리고 동시에 각 소국의 건국신화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에 비하여 정복국의 시조묘는 왕국 전체의 시조묘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복국의 건국신화는 왕국 전체의 건국신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소국병합의 사정이 건국신화에 반영되었다.

IV. 소국병합왕국의 구조

이제 소국을 병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왕국이 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치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소국연맹단계를 거쳐 소국병합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정치적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소국병합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기로 한다. 소국병합과정은 단위 정치체의 수적감소와 영역·인구의 증가를 불러 왔으며 통치체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소국병합을 통하여 늘어난 영역과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종래 소국의 통치체제나 소국연맹단계의 통치체제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소국의 3단계 통치체제보다 한 단계 발전한 4단계의 통치체제가 편제·운용되었다. 4단계의 체제는 소국연맹단계에서도 찾아지고 있으나 소국단계의 통치조직의 위에 편제된 4단계의 조직은 주로 소국연맹의 유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소국연맹단계의 최고 정치단계인 4단계의 조직으로는 원거리교역이나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였다. 소국병합단계에 이르면 소국을 병합한 왕국의 정치조직은 소국을 다스리는 조직이 아니라 소국병합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와 같은 소국병합왕국의 정치조직은 이제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4단계의 최고 정치조직으로 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정복소국에 대한 통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소국병합왕국에

서는 피정복소국을 단위로 하여 지방통치조직을 편성한 바 있다. 피정복소국은 지방통치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郡으로 편제되었다. 물론 고조선이나 부여에서 郡이라는 지방행정조직을 편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3국에서는 피병합소국을 단위로 하여 郡을 설치 운용하였다. 물론 고구려의 경우 소국을 병합한 후 군현으로 편제하였다는 기록과 성읍으로 편제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다소 문제가 된다. 그 것이 군현이 아니더라도 피병합소국이 단위가 되어 편제되었던 지방행정조직인 것만은 분명하다.

피병합소국에 대한 통치방법은 나라에 따라 달랐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고조선, 부여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정복국의 세력들을 왕국의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일종의 봉건제적인 지방통치방식을 뜻한다. 그에 비하여 신라는 피병합소국의 왕과 그 일족은 제거하고 소국의 지방행정구역이었던 촌락의 세력들까지 인정하였다. 후에 소국을 단위로 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신라의 피병합소국 통치방식은 군현제적인 성격을 지녔고 실제로 후에는 군현제로 발전한 바 있다. 이는 고조선·부여와 신라의 피정복소국에 대한 통치방법을 달리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고구려와 백제는 일종의 봉건제적 지방통치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소국연맹 다음의 정치발전단계를 부체제단계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盧重國이 주장하는 部體制段階에 대한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마한·진한·변한의 3한이 수십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기에 소국연맹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 소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의 5부가 중심이 되어 있고, 부여도 4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부체제단계에 있었다고 하였다. 백제도 그와 같은 부체제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⁶⁾

그런데 필자는 이미 마한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백제가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간 것을 언급하였고, 진한에서는 기원후 1세기 후반부터 사로국이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간 것을 밝혔다.⁷⁾ 이에 『三國志』가 편찬된 3세기 후반까지 3한이 단순히 소국연맹단계에 머물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구려의 5부나 부여의 4출도, 백제의 부를 가지고 소국연맹단계 다음에 부체제단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선 고구려의 5나는 전국을 나눈 지방행정구역이라고 생각되는 부여의 4출도나 백제의 부와는 정치적인 성격이 달랐다. 그리고 고구려의 5부, 부여의 4출도, 백제의 부들은 지방통치를 위한 조직이기에 정치발전단계를 논할 때 그 것을 가지고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소국병합왕국의 지방행정구역인 그러한 부나 4출도를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미약하였다. 그러한 지방행정조직의 지배세력은 소국병합왕국 전체를 다스리던 중앙의 지배세력보다 한단계 낮은 세력이었으며 일종의 제후적인 존재들이었다. 이에 소국연맹단계에 이어 나타나는 정치발전단계는 소국병합단계라고 부르는 것이 한결 타당하다고 본다.⁸⁾

V. 소국병합왕국의 지배세력

소국병합왕국의 지배세력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소국을 병합한 소국의 지배세력들이 소국병합왕국 전체의 지배세력으로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피정복소국의 지배세력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국병

6) 盧重國, 앞의 책, 1988, p. 26.

7)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p. 83-90.

8) 혹은 제후적 존재를 인정하여 일종의 봉건제적 통치체제가 편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봉건제적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된다. 이를 지방에 제후적 존재가 있던 통치체제로 부르면 어떻게 한다.

합왕국의 지배세력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비중은 결코 크지 않았다. 여기서 소국병합을 한 소국의 지배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정복을 주도한 소국의 지배세력들은 왕국 전체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정복소국의 시조는 왕국 전체의 시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시조에 대한 제사를 정복국이 주도하여 지냈으며, 한걸음 나아가 피정복국에 분사되었다고 짐작이 간다. 그리고 정복국의 건국신화는 왕국 전체의 건국신화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소국병합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기도 하였다.

정복국의 지배세력들은 원래의 소국 안에 정치중심구역에 살며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소국병합왕국의 정치중심구역에는 왕궁, 왕성, 정청, 무기고, 창고, 시조묘 등 통치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지역에는 왕궁을 비롯하여 보다 큰 집들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보다 많은 수의 지배세력과 그들에 달린 노비나 집사 등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들 지배세력들은 왕족, 왕비족, 전왕족을 비롯한 일반귀족들로 구성되었다. 왕국 전체의 지배세력이 살던 정치중심구역은 소국병합이 전개되며 그 규모가 확대되어 점차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배세력들은 왕국 전체를 대상으로 조세를 수취하였고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지배세력으로서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충당하였다. 그 방법은 왕국 최상부에서 보수의 형태로 재분배되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지배세력들은 건국신화와 시조묘제사를 통하여 그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고구려의 왕족, 왕비족, 전왕족들이 고추가가 되었고 각기 종묘를 세웠던 것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세력들은 각종의 위세품을 가지고 스스로의 지위를 과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지배세력들은 그들을 나타내는 의복을 입었고 특수지역에 거처를 정하였는데 그 자체가 신분적인 특권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피병합국세력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일단 피병합국이 되면 지배세력들은 종래 그들이 누리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피병합국의 왕을 비롯한 일부 지배세력들이 제거 되기도 하였다. 나머지 지배세력들은 지방의 호족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어 소국병합왕국의 말단 지배세력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병합국 지배세력에 대한 편제방식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분명한 예는 신라의 피정복소국 지배세력에 대한 편제에서 찾아진다. 『三國史記』에는 助賁王 7년에 骨伐國王 阿音夫가 무리를 거느리고 來降하였는데 第宅과 田莊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였고 그 땅은 郡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밖에 音汁伐國·悉直國·押督國의 래향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래향한 소국의 왕과 그 일족들은 왕경으로 사민시켜 집과 토지를 주어 정착시킨 바 있다. 이는 피병합소국의 왕과 그 일족들을 왕경으로 이주시켜 원래 그들이 지배하던 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한 것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신라에서는 군대를 보내어 比只國·多伐國·草八國·召文國·甘文國 등을 토벌한 바 있다. 이 경우 신라에서는 그와 같은 피병합국의 왕을 비롯한 최고의 지배세력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거하였을 것이다. 그들을 죽였거나 아니더라도 원래 살던 소국을 떠나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

피병합국 지배세력에 대한 이 모든 조치는 그들로 하여 피병합소국의 통치에서 손을 떼게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당시 소국의 구조를 보면 소국 전체를 다스리던 왕족들과는 달리 촌락사회의 전통을 이은 소국안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된 촌의 지배세력들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그와 같은 촌락세력들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사회적·정치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 촌락세력들은 촌락의 수가 많았기에 그 집단의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촌락세력들을 제거하기보다 소국병합왕국인 신라의 지방세력으로 인정하여 주고 대신 그

들을 통한 지방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와 같은 촌락세력들은 후일 신라의 행정촌과 자연촌의 촌주층을 이루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을 어떻게 편제하였을까. 고구려의 예를 보기로 한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2년조에는 沸流國의 松讓王이 나라를 들어 래향하였는데 그 땅을 多勿都로 삼고 松讓을 多勿都主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多勿이 舊土로 되돌아 오거나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와 같이 이름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에 항복하여 온 송양을 다시 비류국의 땅으로 돌려 보내어 그 지배권을 인정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하여 비류국이 독립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고 피병합소국으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고구려가 소국을 병합한 후 왕의 지위는 빼앗겼으나 그를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류국은 고구려에 병합되어 고구려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지만 그에 대한 통치를 위하여 원래 소국의 왕을 일종의 제후적인 존재로 삼은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고구려에서 피정복소국의 왕들을 제후적인 존재로 삼는 정책의 모습을 주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고구려에서 모든 피병합소국의 왕들을 제후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大武神王 9년에 왕이 蓋馬國을 親征하여 그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위안하였으며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고구려에서 피병합국의 왕을 죽이기도 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피병합소국의 왕을 죽이기보다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여 주는 정책을 폈다고 여겨진다.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을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예는 고조선이나 부여에서도 찾아진다.

고조선, 고구려, 부여의 지방세력들이 피정복 소국의 왕들의 후신들이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류국의 송양왕을 多勿都主로 삼았던 것으로 보아 피정복소국의 왕들이 지방세력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위만과 같은 예는 지방세력의 구성이 피병합소국의 왕들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들은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통치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관리들을 거느렸다. 『三國志』高句麗조에는 諸大加 또한 스스로 使者·阜衣·先人을 두었는데 그 이름을 모두 왕에게 보고 하여야 하였다. 마치 중국의 卿大夫의 家臣과 같았다고 한다. 함께 만나 앉고 일어서는데 王家의 使者·阜衣·先人과 동열에 함께할 수 없었다. 이는 大加들이 중국의 卿大夫와 같은 존재로서 중국인들이 파악하기에 일종의 제후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뜻한다. 大加들의 家臣들은 王家의 신하들보다 사회적·정치적 격이 한층 낮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고구려의 제후적인 존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거느린 가신적인 존재들도 고구려 사회에서는 말단의 지배세력으로 되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들이 거느렸던 가신적인 집단은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고조선, 부여에서도 그러한 집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소국병합단계의 사회에도 이주민들은 계속 들어왔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과거 소국을 형성하였던 이주민집단과 같이 최고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그 것은 소국병합단계의 왕국의 지배세력들이 이미 강력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의 이주민집단은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소국병합왕국의 최고 지배세력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성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氏族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늘어난 지배세력집단의 성원들은 동등한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가지기 어려웠다. 그 것은 한정된 정치적 지위를 모든 성원들이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씨족집단은 점차 여러 家系로 分枝되어 나갔다. 그 중 왕을 배출하는 가계는 지속적으로 최고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하여 방계화된 가계집단의 성원들은 점차 사회·정치적 지위를 상실

하였고 족강(sinking status)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족강된 집단은 거처도 정치중심구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족강은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리였다. 왕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집단은 왕국 최고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늘 유지하였다. 그리고 왕을 배출하는 가계는 아니지만 전왕족이거나 왕비를 배출하는 씨족집단의 여러 가계 중에도 실제로 종손이 속한 가계나 왕비를 배출하는 가계에서는 사회·정치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고구려의 전왕족과 왕비를 배출하는 집단에서 고추가와 칭호를 사용하였고 종묘를 세운 것은 그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한편 족강된 집단 또는 방출된 집단은 거처를 정치중심구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겼고 정치적 활동에도 한계가 생긴 바 있다. 그러한 집단은 급이 낮은 관료집단을 이루었고 보다 낮은 신분층으로 되었다. 여기서 씨족의 가계분화를 통하여 신분하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소국병합왕국의 지배세력들은 각기 씨족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왕을 배출한 씨족집단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고구려 소국을 세우고 고씨를 성으로 사용하였다. 백제의 온조왕의 후손들은 부여씨를 사용하였다. 신라에서는 혁거세의 후손들이 박씨, 탈해의 후손들이 석씨, 알지의 후손들이 김씨성을 사용하였다. 성씨의 사용을 씨족집단을 나타내는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성씨의 사용은 보다 후대의 일이며 성씨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각 씨족집단은 그들 집단을 나타내는 나뭇대로의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신라의 박씨족은 말, 석씨족은 까치, 김씨족은 닭 등을 씨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장치는 각 씨족집단의 시조에 대한 신화 또는 설화였다.

다음은 일반 지배세력집단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구려에서는 일찌

기 성씨를 사용한 바 있다. 『三國史記』始祖東明聖王조에는 주몽이 남하하는 과정에 만난 再思에게는 克氏, 武骨에게는 仲室氏, 默居에게는 少室氏의 성을 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백제에서는 진씨와 해씨 등의 성씨를 사용한 바 있다. 신라에서는 박·석·김씨 이외에 6촌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세력들에게 왕경 6부의 부를 단위로 하여 각기 하나씩의 성을 부여하였다. 신라 왕경6부의 세력들에게 성씨를 준 것은 보다 후대의 일이다. 그러나 6부인들은 사로국의 형성 이전 촌락사회단계 시대부터 촌락의 형성과 그 시조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신화는 6촌·6부의 세력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역할을 하였고, 후일 부의 세력들을 단위로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소국병합왕국의 왕에 대한 문제를 보기로 한다. 국가는 왕을 세움으로 성립되었다. 소국병합왕국시대에 왕의 지위 유지장치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시조묘제사와 건국신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보기로 한다. 소국단계에 이미 각 소국에는 시조묘가 설치되었다. 소국연맹단계에서도 각 소국은 독자적인 시조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국병합왕국단계에 이르면 피병합국의 시조묘는 변동을 겪게 되었다. 피정복소국의 왕들이 제거되면서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지낼 집단이 사라졌다. 한편 고조선, 부여, 고구려와 같이 피정복국 왕들을 지방세력으로 인정하여 주고 제후적인 존재로 삼은 나라에서는 피정복국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 것은 피정복 소국의 왕과 그 후손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인정되었기에 그들의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소국들을 병합한 왕국의 시조묘는 한 단계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조묘는 이제 왕국 전체의 시조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피정복소국 지역에 시조묘제사를 분사하였다고 믿어진다. 피정복소국의 지배세력들은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지배씨족의 시조를

받들게 되었다. 신라의 영역에서 발굴되는 금동관, 은관 등의 유물은 시조묘의 제사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의 모체가 되었고 소국병합을 주도한 사로국이 변하여 이루어진 왕경지역의 고분에서는 금관, 금동관, 은관 등 모든 형태의 관들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단정하기는 이르나 그와 같은 관들이 제사용품이었다면 지방에서는 금관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에도 등급이 있었고 최고의 지위는 신라의 왕과 그 일족들이 차지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병합국 지역에서의 시조묘제사는 격이 떨어졌다고 해야겠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때 일족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한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일족의 공동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 공동혈연의식을 다지게 되었고 공동운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피정복소국에 분사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여 주었으며, 나아가 왕국 전체의 시조로 받들게 함으로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형성된 왕국 전체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건국신화를 보기로 한다. 소국병합왕국의 건국신화는 왕국의 지배세력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왕을 위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왕국의 왕들은 건국신화를 가지고 사회적·정치적 권위와 위엄을 확대시켜 나갔다.

소국과 소국연맹단계의 각 소국에는 독자적인 건국신화나 설화들이 있었다. 그런데 소국병합왕국단계에 이르면 피병합소국에는 그와 같은 건국신화를 유지할 세력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왕국 전체의 건국신화가 한 단계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이제 소국병합을 이룬 소국의 건국신화는 왕국 전체의 건국신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건국세력은 피정복소국들의 공동시조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건국신화에 조정도 생겼을 것이다.

소국병합왕국의 건국신화는 왕이 중심이 된 왕실의 신화로 자리잡으며 각종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왕위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건국신화는 후일 불교와 같은 고급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 때까지 왕국의 통치질서를 합법화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건국신화에는 건국의 시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의 가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따라서 후대의 왕들은 건국신화에 나오는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가계의 범위 안에서 왕위를 계승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왕들은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고 시조묘를 유지하였다. 한편 국가에 따라 왕이 아닌 씨족이나 그 안의 일정 가계에서도 시조를 모시는 종묘를 세운 바 있다. 고구려의 전왕족이나 왕비족들이 종묘를 세운 것이 예가 된다. 신라에서도 박·석·김의 3씨족들이 각기 그들의 시조를 제사지내는 묘를 설치하였다. 그 중 박씨족의 시조묘는 신라 건국의 시조로 받아들여졌다. 후일 신궁이 김씨족의 시조묘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석씨족은 16대 흘해왕을 마지막으로 신라의 정치무대에서 일족들이 자취를 감추어 그들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다.

소국병합왕국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사실상 각 왕국마다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왕을 배출하던 씨족과 가계집단의 시조묘는 왕국 최고의 시조묘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다른 지배세력의 시조묘는 격이 떨어졌다. 그와 같은 시조묘는 죽은 시조에 대한 제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 것은 가계집단의 우두머리가 제사를 주관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조묘에는 그 후에 활동한 시조의 후손들도 모셔졌다고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셔진 것은 아니고 가계의 우두머리 또는 왕위계승자들이 모셔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왕실이나 유력한 지배세력들이 건국신화를 근거로 시조묘 또는 종묘를 설치·운용하였고 그에 대한 제사를 지냄으로 왕국의 정신적인 통제장치로 삼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도 왕위계승의 계보와 그 일족들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왕을 포함한 씨족집단은 그 계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가계집단이 나뉘었고 왕을 포함한 가계의 성원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것은 계보의 암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가계의 계보는 혈족집단을 확인하는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계보는 사회적·정치적 기능이 있었다. 특히 왕의 지위와 권력을 확인시켜 주는 장치가 되었으며 현재를 합리화시켜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소국병합왕국에서건 왕의 계보는 소국연맹단계는 물론이고 소국단계까지 소급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왕위계승에 대한 계보는 변동이 생겼다. 후대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왕위계승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왕위계승집단은 나라에 따라 또 왕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왕위계승을 하던 가계집단의 규모도 변동이 있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왕위계승은 부자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당시 왕위계승은 일정한 범위의 가계집단 안에서 이루어졌다. 3국의 왕위계승표를 그려보면 마치 형제간에 왕위계승이 이루어진 것 같이 되나 이는 계보의 생략으로 나타난 현상일뿐 실제로는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이나 부자상속이라기보다 일정한 범위의 가계내의 계승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계는 부계가계였던 것이 분명하다. 후일 왕권이 강화되면 왕위계승을 한 가계집단의 폭이 줄어들어 부자간에 또는 형제간에 왕위계승을 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였다.

당시의 기본적인 왕위계승원리는 부계가계내의 왕위계승이었다. 그런

데 그와 같은 계승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 박씨왕의 뒤를 이어 석씨왕시대가 나타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에서는 전왕족인 涓奴部가 있었던 것이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이는 왕위계승이 가계집단의 원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왕위계승에는 정치적인 환경이 작용하였다. 박씨왕시대에 뒤이어 석씨왕시대가 전개된 것은 석씨세력의 정치적인 실력이 박씨족을 능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가계집단의 원리인 혈연적인 원리와는 무관한 것을 보여준다. 물론 석씨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 왕위를 계승한 후에는 석씨족의 특정 가계집단 안에서 왕위가 계승되었다. 한편 부계가계내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가계집단의 성원들은 동등한 왕위계승권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소국병합왕국단계의 왕들은 세상을 떠나야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왕들 중에는 정치를 행할 능력이 없어 왕위를 물려나거나 쫓겨 나는 예도 있다. 이는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할 때나 통치능력이 없을 때 왕위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소국병합왕국의 왕들의 권력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왕국에 있어 왕의 권력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조직을 장악하였고, 생산수단을 통제하였고, 전쟁과 방어를 수행하였으며, 공공사업을 하였고, 재판을 하였고, 조상묘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서 행하여졌으나 실체는 지배층 그 중에서도 왕과 그 일족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한 바 있다.

왕국의 왕들은 건국신화와 시조묘에 대한 제사 등으로 그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다. 그리고 각종 위세품을 사용하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소국병합왕국의 왕들은 왕권강화를 위한 조치를 끊임없이 취하였다. 왕들은 국가의 통치조직을 강화·발전시켰다. 관직을 분화설치하였고, 제사를 분리하였고, 군대를 확충하였으며, 지방통치에 관심을 기울여 나갔다.

왕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관료를 늘렸고, 그에 따라 관직의 설치가 활발하여지게 되었다. 제사를 분리하여 왕실만의 제사가 아니라 왕국 전체의 제사로 만들게 되었다. 소국병합을 전개하며 군사조직을 확충하여 소국병합을 가속화시켜 나가게 되었고 이미 정복한 소국에 대한 군사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통치를 강화하게 되며 지방으로부터 조공이나 조세를 거두어 왕국의 중앙 지배세력들에게 분배하여 주어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만들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왕들은 그들의 무덤을 전에 없이 광대하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왕실의 묘역을 성역화하여 갔다. 이는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왕국 전체에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무덤을 축조하는 과정에 국가 전체의 동원능력도 신장시킨 바 있다.

각 왕국마다 왕권의 실상이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에서 10대 산상왕에서 14대 봉상왕에 이르는 동안 왕의 동생들을 죽이는데 반하여 신라에서는 왕의 동생들을 대우하여준 바 있다. 이는 왕국에 따라 정치적 환경, 사회관념, 경제적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권을 제약하는 집단의 성격도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라에서는 박·석·김의 3씨족 중 일정한 가계집단의 성원들이 왕을 배출하였고 왕비를 배출하였다. 이에 3씨족 중 정치의 일선에 나설 수 있던 가계집단의 성원들이 왕비족으로 또는 왕모족으로 왕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하였다. 그리고 왕의 동생들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할도 있었다. 그에 비하여 고구려에서는 왕의 동생들은 잠재적으로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었기에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신분제도는 소국병합으로 인하여 왕국 전체를 단위로 하는 하나의 신분체계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신분층이 늘어났다. 소국병합을 이끌어 나간 소국인들의 신분은 피병합국인들의 신분보다 한층 높아졌다. 그와 같은 신분변동은 정복과 피정복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

새로이 병합한 피정복 소국들을 포함한 신분체제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소국병합왕국의 왕을 중심으로한 최고의 지배세력들은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확대된 신분제를 유지하였다. 신분이 만들어진 후에는 신분적인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때에도 정치적인 권력은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거기에 더하여 최고 지배세력들은 종교적인 힘을 토대로 그들의 신분이 가지는 신성함을 뒷받침 받았다. 한편 그러한 신분은 갈등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층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기도 하였다.

소국병합왕국에서는 불평등 신분을 유지하였다. 여러 형태의 고분이나 왕성과 궁궐을 비롯한 주거지의 차이는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그러한 차이는 소국병합국과 피병합국 사에서도 찾아진다. 그리고 각종 유적에서 발굴되고 있는 위세품의 차에서도 확인된다.

소국병합왕국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왕국의 신분에 대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유물과 유적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노동력의 투입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위세품의 규모와 질적인 차이도 신분의 성격을 나타내준다. 그러한 유적과 유물의 차이는 정치권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유적의 서열을 통하여 신분의 모습을 읽어낼 수도 있다.

VI.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조직

소국병합왕국단계의 통치조직에는 몇가지의 특성이 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소국병합왕국은 각기 독자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국병합으로 만들어진 왕국을 통치하

기 위한 조직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찾아진다. 그러한 왕국의 통치조직은 기존 정치발전단계의 통치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단계에 필요한 통치조직을 상급조직으로 만들어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촌락사회단계의 통치조직들은 소국단계에서는 소국의 지방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조직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소국의 통치조직은 소국병합왕국의 郡 정도의 지방행정조직인 남게 되었고, 여러 피병합소국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조직이 그 위에 편성되었다. 신라에서는 후일 촌락사회단계의 단위 정치조직이 왕경에서는 部로 되었고 피병합소국에서는 행정촌으로 되었다. 그리고 피병합소국은 郡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발전이 이미 앞서 있던 통치조직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여 편성된 것을 보여준다.

국가에 있어 정치권력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된다. 그런데 왕의 정치적인 권력은 국가통치조직을 통하여 행사되었다. 이에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도 피병합소국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왕권이 강화되었다. 크게 늘어난 영역과 인구를 통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은 군대를 사용하여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비교적 복잡한 관료제가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의 정치발전단계에 있었던 통치조직 위에 누층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한 것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치조직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중앙정부조직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소국의 정치조직은 3단계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왔다. 그 1단계는 촌락사회단계 이래의 마을들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이며, 2단계는 촌락사회단계 이래의 촌락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이고, 3단계는 소국단계의 소국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이다. 소국병합왕국에 이르러 병합된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다스리기 위한 4단계의 통치조직이 편성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한다.

먼저 관료조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관료조직의 정점에는 왕이 있었다. 실제로 4단계의 정점에는 소국들을 병합한 정복왕국의 왕이 위치한다. 왕들은 대를 이어 일정한 가계에서 배출되었다. 왕들은 전쟁, 공공사업, 재판, 시조묘제사를 수행하였다. 왕들은 그의 활동을 뒷받침할 보조기구를 설치·운용하였다.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각종 정치조직들이 그러한 예가 된다. 그러한 조직 중에는 왕의 측근에서 왕국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참모조직(staff authority)과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던 지방통치조직(line authority)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귀족들로 이루어진 회의체도 있었다. 왕들 중에는 정치를 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치를 잘못하여 폐위되는 경우도 있었다.

왕 밑에는 수상이 있었다. 고조선에는 대부, 위만조선에는 조선상 등으로 기록된 관료들이 보인다. 고조선의 대부나 위만조선의 상 등은 왕국의 수상에 해당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위만조선에는 조선상 이외에 니계상도 있었기에 조선상만이 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相들 중 수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의 左輔·右輔와 國相 등은 왕 밑의 관료 중 우두머리가 된 것이 분명하다. 백제의 左輔·右輔는 소국병합왕국의 수상에 해당한다. 신라에서는 大輔에 이어 대체로 伊瀆이 수상에 해당하는 자리였다고 여겨진다. 후에는 이찬 위에 이별찬이라는 관직이 설치되며 수상의 자리로 되었다.⁹⁾

국왕과 수상들 밑에는 소국병합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중앙관료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당시 정부조직을 보면 아직 관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관직과 관등이 명확히 구분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관직과 관등의 구분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에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주어진 직책명이 달랐다. 한편 중앙정부의 관료는 아나나 占卜이나 呪術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직책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9) 李鍾旭, 앞의 책, 1980, pp. 202-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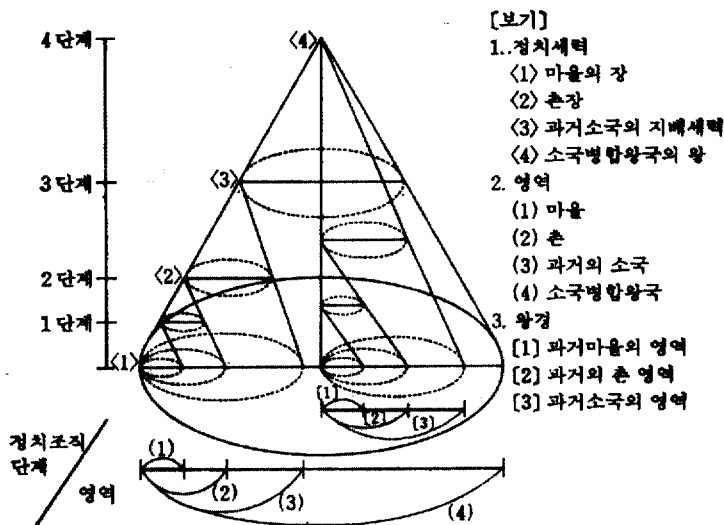
전문집단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관직이었다고 생각되는 예 중에는 相, 侯, 大夫, 將軍 등 중국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과연 고조선 등의 왕국에서 중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지 궁금하다. 단지 고조선에서는 중국 燕의 제후가 왕을 칭할 때 왕을 칭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생각보다 일찍부터 중국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짐작된다.

중앙정부의 관료를 배출한 세력은 대체로 왕정인들이었다. 그런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에서는 지방세력들도 중앙정부의 관료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신라와는 크게 다른 면을 보여준다. 신라에서는 피정복소국의 왕급에 해당하는 세력들 제거하였거나 왕정으로 사민을 시켰다. 왕정으로 이주한 피정복국 세력들 중에는 왕정인으로 편입되고 점차 중앙정부의 관료가 된 세력도 있었다.

소국병합왕국에는 群臣들의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각국의 왕과 수상들이 그러한 군신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때로는 군신회의에서 왕위계승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수상을 뽑는 등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군신들의 출신은 신라에서는 왕정인들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왕국에서는 왕정인은 물론 지방의 제후들도 참여하였다.

다음은 소국병합왕국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지방행정조직은 왕정과 그 밖의 지방으로 구분된다. 왕정은 소국병합을 한 소국을 모체로 하여 편성되었다. 신라의 모체인 사로국과 백제의 모체인 십제라는 소국은 각기 신라와 백제의 왕정으로 되었다. 그러한 사정은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고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단지 고조선은 요동지역에서 평양지역으로 천도하였으며, 원래 고조선의 모체가 되었던 고조선 소국의 위치도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부여의 모체가 된 소국의 위치도 현재로서는 어디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모체가 되었던 소국 고구려

는 원래 환인에 있는 졸본성에 도움을 하였으나 후에 졸안의 국내성으로 중심을 옮긴 바 있다. 이에 고구려의 왕경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체제

소국병합왕국의 왕경은 확대·발전되었다. 피정복소국의 지배세력을 왕경으로 사민시키거나 전쟁포로를 잡아 오기도 하였다. 이에 소국병합 과정에 왕경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왕경의 비생산층을 확대시켰다. 그러한 비생산층 중에는 관료, 군대, 기술자, 성직자 또는 상인 등이 있었다. 당시 왕경의 정치중심구역은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커지게 되어 후일 왕경안에 도시의 성장을 이룰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왕경의 성장은 정복국 자체의 힘이 축적된 것을 나타내준다. 그러면서도 도시화가 크게 전개되지 않았던 것은 도시화가 이점이 있

었으나 그에 못지 않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경의 구조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왕경은 소국병합을 주도한 소국을 모체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왕경도 원래 소국의 지방통치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단지 소국병합과정에 왕경의 인구가 늘어난 점은 있다. 소국의 지방통치구조는 몇 개의 촌락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소국의 지방행정조직으로는 촌락사회단계의 독립 정치체였던 직경 10km 정도의 촌들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촌들은 원래 직경 3-4km 정도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마을과 촌들은 소국병합왕국의 왕경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 신라에서는 촌들이 부로 편제되어 6부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들은 후일 부 밑의 행정조직인 리로 편제되었다. 왕경안에서 정치중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王畿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소국의 정치중심구역은 소국병합왕국에 이르러 한층 발전하여 그 규모가 커졌다. 정치중심구역에는 피정복 소국의 많은 포로들이 노비로 들어왔다. 그리고 피정복국의 지배세력들 중 일부는 정치중심구역으로 이주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치중심구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보다 많은 집들이 축조되었다. 또한 소국병합에 의하여 늘어난 영토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도 확대·발전하게 되어 관료집단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대체로 정치중심구역안에 거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상업을 위한 집단도 그 안에 거주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에 정치중심구역은 점차 확대되었다. 후일 정치중심구역은 王京안의 王都로 되었다. 왕도는 소국병합왕국의 왕과 최고 지배세력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되었다. 왕도는 왕국의 정치·경제·행정·종교·군사·사회 등의 중심지가 되었다.

다음은 피정복소국에 대한 통치조직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고조선의 지방 통치조직에 대하여 주목한다. 『三國志』에 인용된 『魏

略』의 기록에 따르면 燕王 盧綰이 흉노로 망명을 하자 燕人 衛滿이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을 하였다. 위만은 준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머물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들을 거두어 조선의 번병이 되겠다고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에 임명하고 圭를 하사하였고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고조선에서 지방에 제후를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위만에게 주었던 圭는 제후가 왕을 조근할 때 사용한 것이며 백리의 땅을 봉하여 준 것은 위만을 제후로 인정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 후 위만조선에도 朝鮮相 路人, 相 韓陰, 尼谿相 參 등의 相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후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右渠王 때의 朝鮮相 歷谿卿이 왕에게 무엇인가 간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辰國으로 갔는데 그를 따른 자들이 2천여 호였다는 『魏略』의 기록을 보아 지방의 제후들이 적지 않은 백성들을 거느렸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志』 夫餘조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諸加들이 4出道를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다. 諸加 중 大者는 수천가를 다스렸고 小者는 수백가를 다스렸다. 적이 쳐들어오면 諸加들은 스스로 전투를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諸加는 지방의 제후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틀림없다. 한편 『後漢書』 夫餘國조에 나오는 기록을 통하여 諸加들은 읍락들을 다스린 것을 알 수 있다. 제후에 해당하는 加들이 다스리는 영역은 각기 여러 읍락으로 나뉜 것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피병합소국을 제후국으로 만들었다. 『三國史記』 高句麗 始祖東明聖王 2년조에 沸流國의 松讓王이 래항하여 오자 그 땅을 多勿都로 삼고 松讓을 그 곳의 主로 삼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피정복소국의 왕들을 제후로 삼았던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三國志』 高句麗조를 보면 諸大加들 역시 스스로 使者·阜衣·

先人을 두었는데 그 이름을 모두 왕에게 보고한 바 있다. 마치 중국의 卿大夫의 가신과 같았다. 회동할 때 앉고 일어서는데 있어 王家의 使者·阜衣·先人과 같은 열에 설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의 제후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준다. 諸加들이 다스리던 각 지역은 과거의 소국영역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諸加들이 다스리던 영역안에는 다시 여러 읍락들이 있었다. 또한 과거 피정복소국의 정치중심구역에는 城邑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고구려나 부여의 諸加들은 관료들을 거느렸다. 고구려의 諸加들이 거느렸던 使者·阜衣·先人 등이 그 좋은 예가 된다. 諸加들이 거느렸던 관료들은 王家의 관료들과 격을 같이 할 수 없었고 또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이 흥미롭다. 왕들은 직접 諸加의 영역을 통치하지는 않았으나 諸加들에 대한 통제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諸加들은 군대도 거느렸다. 군대들이 상비군이었는지 아니면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일반 백성을 동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부여에서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제후에 해당하는 諸加들은 중앙정부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諸加는 지방통치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방어를 하였다. 또한 기록에는 없으나 諸加들은 시조묘에 대한 제사도 지냈을 것이다. 諸加들에게는 지방통치의 자치권이 인정되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에서는 食邑을 주는 예가 보인다. 新大王 8년에 漢兵을 크게 물리친 明臨荅夫에게 坐原과 質山을 식읍으로 주었다. 그 외에도 東川王과 烽上王대에 식읍을 준 일이 있다. 고구려에서 식읍을 준 것은 국가에 대한 공에 대한 보상이었다. 식읍을 주면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明臨荅夫가 직접 그에게 주어진 식읍에 가서 통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식읍을 준 것은 지방통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지방통치체제는 봉건제와 비교할 수는 없을가. 일반적으로 봉건제하의 諸侯는 왕족이거나, 지방의 토착세력이거나 공신계열로 봉해지는데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서는 피병합소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피병합소국의 왕과 같은 세력들을 加로 삼은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위만에게 方百里的 땅을 봉하여준 것은 토착세력을 제후로 임명한 경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후는 피병합국의 지배세력들이 임명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한국초기국가 형성·발전과정에 소국병합왕국 단계에서 봉건제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봉건제적인 사회를 찾는다면 소국병합왕국 단계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諸加에 의한 제후적인 지방통치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제 주로 신라의 피병합소국에 대한 통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라에서는 피병합 소국의 왕을 왕경으로 불러 들이거나 제거하였다. 반면에 소국을 구성하였던 촌락의 지배세력들은 그 지위를 인정하였다. 촌락은 후일 행정촌으로 편제되었고 촌락의 지배세력들은 후에 진촌주총으로 되었다. 소국을 병합한 후 신라에서는 지방관을 곧 파견할 수 없었다. 그러한 소국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 지방행정구역인 郡에 상주하는 지방관은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그 곳을 통제하는 좌·우군주와 성주를 파견하였다.¹⁰⁾ 좌·우군주와 성주들이 피병합소국을 다스렸다. 이는 부여나 고구려와는 다른 지방통치의 방법을 보여준다.

소국병합왕국단계의 부여나 고구려에서는 봉건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신라에서는 일종의 군현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백제의 경우 대체로 부여나 고구려의 방식과 같은 피병합소국 통치방식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소국병합왕국의 지방세력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부여나 고

10) 李鍾旭, 앞의 책, 1982, pp. 248-251.

구려에서는 피병합소국의 왕실세력들이 대체로 諸加세력들로 된 바 있다. 그리고 읍락의 세력들도 소국단계 읍락지역의 지배세력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그 지위를 차지하였다. 신라에서는 소국의 왕실세력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뿌리가 뽑혔다. 그에 비하여 소국의 지방행정구역이 되었던 촌락과 마을의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신라의 왕경에서는 원래 사로국의 왕실세력이었던 박씨족·석씨족·김씨족들이 정치중심구역에 거주하며 왕실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촌락사회단계 촌락의 지배세력인 촌장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후일 6촌이 변하여 이루어진 왕경의 지방행정구역인 6부의 지배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박씨족·석씨족·김씨족들은 기본적으로 왕국 전체의 지배세력들이었고 6촌·6부의 지방세력은 아니었다. 여기서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도 종래의 촌락사회단계와 소국단계의 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세력으로 남았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소국병합을 통하여 형성된 왕국은 정복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와 같은 정복국가는 왕국 전체를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치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왕국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인 체계로 묶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왕국을 하나의 군사적인 통합체로 만들었다. 이는 나아가 정치적인 일치를 가져왔다. 피정복국의 시조묘를 없애고 정복국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왕실만의 행사가 아니었다. 왕족, 귀족, 평민 등이 모두 관련된 행사였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국왕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약소 씨족들이 지배 씨족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종교적인 면에서도 왕국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가게 되었다. 한편 정복국의 건국신화를 왕국전체의 건국신화로 확대·발전시킨 것도 알 수 있다.

소국병합왕국의 피병합국의 제후와 지방세력들에 대한 통어책을 보기로 한다. 제후에 대한 통어책으로 朝覲과 巡狩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속국을 병합한 왕들은 피정복국에 대한 순수를 하였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지방 제후들은 朝覲을 하였던 것으로 해아려진다. 국왕이 지방을 순수하는 것은 제후들의 시정을 감시하고 민정을 살펴 유공자를 표창하고 불복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의 제후적인 존재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였다. 고조선의 조선상이나 니계상은 좋은 예가 된다. 소국병합왕국에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군사적인 동원을 하여 왕국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한 바 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외부세력의 압력에 대항하고 막아내는 의미도 있었으나 안으로는 왕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실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지방세력들이 불복하면 군대를 보내어 진압을 하고 반란세력을 제거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사민시켜 불복세력들의 세력기반을 뿌리뽑기도 하였다.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체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일정한 관료집단으로 편성되었다. 국왕은 그러한 통치조직을 가지고 군대를 징발하였고, 조세를 징수하였으며, 분쟁을 조정하였고, 자원을 분배하였으며, 관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소국단계와 소국연맹단계를 거쳐 소국병합왕국단계에 이르면 하나의 단위 정치체의 영역과 규모가 전에 없이 커진 바 있다. 소국들이 한번 통합되면 중앙의 권력은 영속적인 권력체계로 발전하였다. 소국병합으로 만들어진 왕국의 정치영역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체제변동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소국병합왕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왕국으로 성장하여 나가게 되었다.

VII. 소국병합왕국의 대외관계

소국병합왕국단계에 이르면 왕국의 영역과 인구가 늘어났으며 종래 소국연맹단계와는 다른 형태의 대외관계가 전개되었다. 소국병합왕국의 대외관계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하나는 이웃한 소국들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소국의 단계를 넘어서 다른 소국연맹 또는 소국병합왕국과의 관계이다.

먼저 소국병합왕국과 이웃한 소국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원래 이웃한 소국들은 소국연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고구려는 예맥이라는 소국연맹의 한 소국으로 자리잡았다가 점차 이웃한 소국들을 병합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백제도 마찬가지였다. 백제는 韓이라는 소국연맹의 한 소국으로 자리잡았다가 이웃한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갔다. 그에 비하여 신라는 진한이라는 소국연맹의 맹주국으로 있다가 연맹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갔다. 고구려와 백제는 소국연맹의 맹주국이 아니었으면서도 소국병합을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가게 되며 예맥과 마한이라는 소국연맹은 각기 고구려와 백제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에 비하여 사로국은 이웃한 소국들을 병합하는 중에도 아직 병합되지 않았던 진한연맹의 소국들은 사로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소국연맹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소국병합이 전개되며 정복왕국의 영역이 확대되며 점차 다른 소국연맹체 또는 소국병합왕국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고구려는 태조대왕대에 沃沮를 병합하였다. 그런데 沃沮는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 조선에 속한 것으로 『三國志』 東沃沮조에 나오고 있다. 『三國志』 濊貊의 기록을 보면 위만조선이 들어서며 예가 조선에 신속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일 單單大山嶺 서쪽은 낙랑군에 속하였고 그 이동의 7현은 동부도위가 관할 하였다. 동부도위가 폐지된후 그 거수가 侯

가 되었다고 하는데 漢末에 다시 句麗에 속하였다고. 句麗에 다시 속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그 이전 언제인가 구려에 속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여는 漢 이래 挹婁를 신속시킨 것으로 『三國志』 挹婁조에 나오고 있다. 부여는 租賦를 무겁게 거두어 黃初년간(220-226)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부여에서는 여러 차례 정벌하였으나 쉽게 굴복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구려와 부여가 소국이 아닌 보다 규모가 큰 정치체를 신속시켜 조부를 거두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소국병합왕국들이 소국보다 훨씬 큰 정치체를 신속시켜 국력을 신장시킨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소국병합왕국의 대외관계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라에서는 피정복 소국에 지방관이나 군대를 파견하여 보다 직접적인 통치를 하였다. 둘째, 부여, 고구려, 고조선, 백제에서는 피병합소국의 지배자를 제후로 삼았던 것을 보면 피병합소국들의 자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피정복소국과의 관계가 또 다른 유형이 된다. 셋째, 이웃한 소국연맹체의 독립소국들과의 관계가 있다. 고구려의 예맥 소국연맹의 미정복소국에 대한 관계와 백제의 마한 연맹의 미정복소국에 대한 관계나 신라의 진한의 미정복소국에 대한 관계가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그와 같은 독립소국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던데 반하여 신라에서는 독립소국들의 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넷째, 부여에 대한 읍루, 고구려에 대한 예 및 옥저의 신속관계가 또 다른 유형이 된다. 고구려나 부여는 소국보다 발전한 정치체를 신속시켜 조부를 거두었다. 이 때 신속된 정치체는 대체로 자치를 누린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대외관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소국병합왕국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인 발전을 한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여섯째, 한국의 소국병합왕국들과 중국과의 대외관계가 있다. 그러한 정치체 사이에는 원거리교역과 전쟁이 행하여진 바 있다.

여기서 중국 또는 중국군현과 소국병합왕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도 중국세력과 원거리교역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소국병합왕국의 왕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은 위세품의 획득을 위한 원거리교역에는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것은 소국병합을 하여 영토와 인구가 크게 늘어난 왕국의 지배세력들이 그들의 위세를 나타내는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치에는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고 독자적인 관직도 있었다. 물론 왕국의 지배세력들은 끊임 없이 중국의 선진문물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책구루체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위세품교역은 불평등한 것이 될 수 없었다.¹¹⁾ 그리고 원거리교역을 통한 위세품의 교역으로 정치조직을 수입하는 일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왕국과 중국 또는 중국군현과의 사이에 있었던 원거리교역은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정치적인 의미도 줄어들었다. 그에 비하여 3한의 피정복 소국들을 포함한 지역에 살던 토착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세품을 받고 관작을 받는데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다음은 소국병합왕국과 중국 또는 중국의 군현과의 전쟁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중국의 군현과 전쟁을 하였다. 고구려는 소국으로 있을 때 그 영역에 현토군의 군치가 설치되었다. 기원전 75년에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현토군의 군치를 몰아냈다. 그 후 1세기 초부터는 현토군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요동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이를 잘 막아내고 나아가 낙랑군까지 공격하였다. 대무신왕은 낙랑을 공격하면서 중국 漢의 光武帝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慕本王대에는 燕지방까지 공격하였으며 이 때 고구려는 영토가 확대되어 중국의 군현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의 대중국관계는 중국 본국을 상대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태조대왕대에

11)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政治의 成長과 對中國關係의 展開」, 『東亞史의 比較研究』, 1987, pp. 72-72.

는 요서에 10성을 쌓아 漢兵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동옥저를 복속하여 동해안에 이르렀고 북으로 부여와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2세기초에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현토군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내군 또는 변군에 속한 바 있다. 그러한 관계는 대체로 고구려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상대 군현이 바뀐 것을 나타내준다. 그와 같은 '屬關係'에 의하여 고구려가 중국군현에 조부를 바치거나 병력을 징발당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측에서는 고구려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고구려는 중국에 朝謁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중국군현과 지속적으로 전쟁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 고구려는 예맥, 선비 등과 동맹세력이 되었고, 중국군현은 부여와 동맹관계를 가졌다. 당시 중국은 고구려가 向化之心을 가지고 중국의 변경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다. 고구려는 중국에 맞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갔다.

백제는 고이왕 13년(246)에 유주자사 田丘儉과 낙랑태수 劉茂, 대방태수 弓遵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빈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어 낙랑의 변민을 습취하였다. 당시의 전쟁은 『三國志』 韓조에도 나오고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하였다. 이는 백제가 이미 중국의 군현과 전쟁관계에 들어갔으며 전쟁에서 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는 韓의 소국들 중에는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 일찍부터 낙랑군·대방군과 관계를 맺었는데 대체로 전쟁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¹²⁾

신라는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 중국의 군현과 전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원거리교역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는 소국들을 병합하며 위세품의 수입을 위한 원거리교역에는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제 신라에서는 그와 가운 위세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관직들도 설치하였다. 그런데 신라에게 병합된 소국의 토착세력들은 계속하여 중국의 군현으로부터 위세품을 공급받았고 관작

12) 이종욱

이나 인수, 의책 등을 받아 피정복소국에서 그들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만조선은 중국과의 대외관계에서 고도의 외교술을 발휘하였다. 『史記』朝鮮列傳에 그러한 사정이 나오고 있다. 위만은 조선의 왕이 된 후 요동의 태수와 約을 하여 外臣이 되었다. 위만은 塞 밖의 만이를 막아 변경을 노략질하지 않게 하고 모든 만이의 군장들이 천자를 입견하고자 할 때 금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중국의 황제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얻었다. 이에 위만은 중국으로부터 兵威財物을 얻게 되었고 그 주변의 소읍을 쳐들어가 항복시키고 진번, 임둔이 모두 와서 복속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위만이 漢의 外臣이 되어 군사적인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 조선의 소읍을 평정하고 진번과 임둔까지 복속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위만조선의 외교술이 능하였던 것을 나타내준다.

VII. 소국병합왕국의 정치적 변동

고조선은 위만조선에 이르러 소국병합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번, 임둔의 정치체를 복속시킨 바 있다. 고구려는 태조대왕 4년에 東沃沮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여 城邑으로 삼았다. 이로서 고구려의 영역은 동으로 창해, 남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이제 고구려는 소국연맹의 소국들을 병합하는 수준을 넘어 또 다른 소국연맹체 전체를 병합하게 되었다. 부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읍루를 복속시키고 조부를 거두었다. 백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이왕대에 이르면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여 그 영역이 충청도에 이르렀고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신라 역시 2세기 후반에 谿立嶺路를 열었고, 竹嶺路를 열어 백제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사상 나타나는 소국병합왕국들은 점차 그 영역을 넓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국병합왕국의 영토확장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그와 같이 확대된 왕국의 통치를 위한 새로운 통치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179-197)이 정치적 개혁을 하게 되었다. 백제에서는 고이왕(234-286)이 정치적 개혁을 하였다. 신라에서는 석씨왕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이 대두한 김씨족인 내물왕(356-402) 이후 새로운 통치조직이 편성되었다. 그와 같은 3국의 정치적 개혁은 종래 소국병합왕국단계에서 유지한 통치체제로서는 왕국 전체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들이다.

고구려의 고국천왕대부터 那 출신 뿐 아니라 왕경의 4부출신들이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이 나출신과 부출신이 함께 활동한 기간은 대체로 1세기 정도가 된다. 여기서 고구려의 고국천왕대에 왕경인들의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이며 왕권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백제의 고이왕대의 정치적인 개혁을 통하여 좌평을 최고의 관직과 관등으로 하는 정치조직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6좌평에 의한 국정분담이 이루어졌고, 그 밑에 좌평을 포함하여 16관등이 일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좌평 밑의 관등이 설치되었다. 이는 백제의 통치체제가 한차원 발전하여 소국병합왕국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에서는 대체로 내물왕부터 시작된 마립간시대에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 중에는 왕위를 18대 실성왕을 제하고는 내물마립간의 후손들이 장악한 것을 들 수 있다. 마립간시대에 김씨족과 연관된 신공이 설치되었고, 왕경과 州郡의 지방통치조직이 정비되었다.

3국의 정치적 변화는 소국병합왕국단계의 통치조직이 새로운 상황에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후 3국은 왕권이 한층 강화되었고 정치조직이 발달되고 통치업무의 증가에 따라 국정을 나누어 관장하기 위하여 관직이 분화되었다. 관리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의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등의 편성이 있었다. 또한 지방통치조직

을 정비하여 조세와 인적자원의 동원체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왕경인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강화되었다. 이는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지방세력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정치적인 변동을 거쳐 3국은 점차 중앙집권적인 왕국단계로 넘어간갔다. 고구려의 고국천왕, 백제의 온조왕, 신라의 내물왕 이후 3국은 소국연맹단계의 면모를 벗어나 한층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발전단계로 넘어간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소국병합왕국에 뒤이어 나타나는 정치발전단계를 중앙집권적 왕국단계로 보면 어떨까 한다.

당시 고조선은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인하여 한군현이 설치되어 정치적인 주권이 상실되었지만 고조선의 주민들이 남아 있던 낙랑조선단계로 넘어갔다. 이에 고조선은 3국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왕국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여는 3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왕국단계로 정치적인 발전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이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사상 국가형성·발전 과정에 중앙집권적인 왕국단계까지 정치적인 성장을 하였던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고 할 수 있다.

IX. 맺음말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과정에 소국연맹에 이르렀던 정치체 중 소국병합왕국단계로 성장한 정치체들이 있었다. 古朝鮮, 夫餘, 高句麗, 百濟, 新羅는 소국병합을 한 정복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국병합왕국에 대하여 정리한 바를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소국병합왕국의 존재부터 알아 보았다. 주몽이 세운 소국 고구려는 이웃한 비류국을 병합하였고, 온조집단이 세웠던 십제는 비류집단이 세웠던 미추홀 소국을 병합하여 백제가 되었다. 신라 역시 탈해왕대에 우시산국, 거칠산국을 병합하여 소국병합을 시작하였다. 고조선이나 부여의 경우 소국병합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소국병합을 하여 커다란 왕국으로 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나 십제는 예맥과 한이라는 소국연맹체가 존재하는 속에 소국을 형성하였는데 후일 각기 그러한 소국연맹의 소국들을 병합하게 되었다. 한국사상 소국병합왕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그 성장과정이 같은 것은 아니었고 소국병합을 전개한 시기도 달랐다.

한 소국이 다른 소국을 병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가 곧 소국병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 하나의 소국을 병합하고 나면 그 후의 소국병합은 가속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소국병합을 전개한 국가는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소국병합왕국의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소국병합은 군사적인 정복과 래항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현토군을 축출하는 과정에 국력을 신장시켜 소국병합을 전개할 수 있었다. 십제는 고구려계 이주민인 비류집단이 세웠던 소국을 쉽게 병합하면서 국력이 신장되어 소국병합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라는 낙랑과의 원거리교역을 하는 과정에 군사적, 경제적 실력을 축적하여 소국병합을 할 수 있었다. 소국병합을 하게 된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막기 위한 것과 소국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것을 들 수 있다. 소국병합 결과 단위 정치체의 숫적감소와 단위정치체의 인구와 영역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피병합국에 대한 통치는 피병합국의 지배세력을 인정하는 방식과 그 것을 제거한 통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이 해당하고 후자의 방식은 신라가 택하였다. 소국병합왕국에서는 병합을 행한 소국의 건국신화와 시조묘 제사를 왕국

전체에 시행토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소국병합왕국의 정치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소국병합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왕국의 정치적 구조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 소국의 3단계 조직이 적어도 한단계 늘어나 4단계의 정치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피병합소국은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지방에 대한 통치방식에 있어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피병합국의 세력을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신라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군현제적인 방식을 취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통치를 하게 되었다.

소국병합에 성공한 소국의 세력들이 소국병합왕국의 최고 지배세력이 되었다. 지배세력들은 정치중심구역에 살았고 왕들은 왕궁을 축조하여 그 안에 살았다. 그리고 왕들은 그들의 건국신화를 왕국 전체의 신화로 만들었고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피병합국 지역에 분봉하였다. 왕을 배출한 혈족집단 외에 전왕족집단 왕비를 배출한 집단이 최고의 정치세력집단을 이루었다. 피병합국의 지배세력들은 중앙의 지배세력으로 편입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그들은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거나 신라에서처럼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왕국의 최고 지배세력은 시간이 지나며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점차 족강이 되어 신분적이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왕국의 왕위계승집단의 규모와 왕위계승 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기본적인 왕위계승 원리는 부계 가계내 계승이었다. 왕국에 있어 왕들의 권력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왕들은 시조묘에 대한 제사와 건국신화 등을 가지고 정당성을 얻었다. 왕국에서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관료를 늘렸으며 그에 따라 관직과 관등을 설치하여 나가게 되었다. 왕국 전체를 하나의 신분체제로 편제하여 나갔다.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왕국의 최고 신분집단이 되었다. 그리고 피병합국의 세력들은 보다 낮은 신분으로 편제되었다. 소국병합이

전개되며 국가통치체제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신분층의 수도 늘어 나게 되었다.

소국병합왕국의 통치조직은 과거에 존재한 조직을 새로이 편제하여 운용하였다. 촌락사회단계의 촌락, 소국 등이 그 기본적인 통치조직이었다. 그 위에 새로이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정부조직이 편제되어 있었기에 적어도 4단계의 통치조직이 편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관료조직의 정점에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는 수상에 해당하는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상들 밑에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중앙관료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중앙정부의 관료를 배출한 세력은 대체로 왕경인들이었다. 그리고 왕국에는 群臣會議체가 구성되어 있었다.

소국병합왕국의 지방통치조직은 왕경과 그 밖의 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왕경은 점차 확대되었다. 왕경안에는 왕궁을 둘러싸고 도시로서 왕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 밖의 지역은 왕기가 되었다. 피병합국에 대한 통치조직은 피병합소국을 단위로 제후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통치방식을 취하였거나 피병합국의 왕실세력을 제거하고 촌락 정도의 세력을 남겨둔 통치방식을 취한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에서는 지방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군대까지 거느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하여 신라에서는 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 제후에 대한 통어책은로조근과 순수를 행하였다.

소국병합왕국단계에 이르게 되면 왕국의 영토와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대외관계의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이웃한 소국들과의 관계보다 인접한 왕국들과의 관계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중국 본국과 군현과의 관계를 병행하여 맺어 나가게 되었다. 백제나 신라는 낙랑, 대방 등과의 원거리교역 또는 군사적인 충돌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고조선은 위만조선에 이르러 이웃한 진번, 임둔 등 정치체를 병합하

게 되었다. 고구려는 동옥저를 부여는 읍루를 병합하였다. 이는 소국병합단계를 넘어선 정복사업을 전개한 것을 보여준다. 이 때에 이르러 왕국은 소국병합왕국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연 국가의 통치체제도 발전하였고 국가통치를 위한 신료집단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관직, 관등의 편제가 크게 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을 거친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은 점차 새로운 왕국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